

간행물 등록번호
1910-08-2020-124



삼다수

안정 속의 잔잔한 개혁

What's New?



[vol. 0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PROVINCE DEVELOPMENT CO.

무 다 스 럽
70 10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PROVINCE DEVELOPMENT CO.





- <삼다소담>은 예로부터 바람, 여자, 돌이 많은 제주의 특징을 표현한 '삼다(三多)'와 즐거운 이야기를 뜻하는 '소담(笑談)'을 조합한 이름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대표하는 소통 플랫폼입니다.
- <삼다소담>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기고된 글과 사진은 공사의 공식견해가 아닌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며,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SPECIAL THEME **안정 속의 잔잔한 개혁, What's New?**

06 Talk

CEO 취임 100일 기념 대담
CEO와 신입사원과의 Talk, Talk!

10 Works

제주개발공사 8대 중점 추진 전략
2023 대한민국 최우수 공기업을 위하여

12 Team

소통상생협력실
소통과 협력으로 제주개발공사의 미래를 준비한다



제주의 물

16 산도롱 삼다수

제주삼다수는 왜 똑똑할까?

18 먹는샘물 이야기

국민 먹는샘물 브랜드, 22살 제주삼다수의 성장기

20 삼다수 레시피

새콤 시원한 히비스커스티



제주 공감

22 곱닥한 제주마을

바다와 바람이 만든 보물 마을, 구좌읍 김녕리

28 소뭇 사랑함수다

지금도 생생한 그날의 추억,
응답하라 JPDC 사진 공모전



공사 소식

30 혼디모영 지꺼지계

골프 여제들의 뜨거운 대결, 2020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34 모다들영 공사 사람들

24시간 제주삼다수를 지키는 슈퍼 히어로 정성환·박영준 반장
제주삼다수를 위해 뭉쳤다! 생산지원 어벤져스 생산지원본부
제주도민을 위해, 개발사업 전문성 업그레이드! 자격 취득 3인

44 벨롱벨롱 제주 만들기

상생 경영으로 재도약하다 노사상생 합의 조인식
제주의 공익을 위해 한걸음 더! 공사 적극행정면책 제1호 사례

48 제주개발공사 뉴스

제주삼다수 취수원 주변 지하수 특성 논문 발표 외

안정 속의 잔잔한 개혁



What's New?

신임 CEO 취임 후 100일,
제주개발공사는 '안정 속의 잔잔한 개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최고 공기업 제주개발공사,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Talk

안정 속의 진정한 개혁, What's New?

CEO 취임 100일 기념 대담

CEO와 신입사원과의 Talk, Talk!

'안정 속의 진정한 개혁'을 표방하며 신입 사장 취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선 제주개발공사. 취임 100일을 맞아 김정학 사장이 신입사원 4명과 함께 제주개발공사의 변화와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정리 편집실 사진 안종근



본 칼럼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강화 이전에 진행했으며, 촬영 전후 참가자, 스태프 전원의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Q 편집실 :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100일, 그리고 신입사원 분들은 입사한 지 두 달 되셨지요. 그동안 새로운 일에 적응하시느라 바쁘셨을 것 같아요.

김정학 사장 이제서야 '사장'이라는 호칭에 조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취임 후 교래리 본사와 감골공장, 임시사무연구동에서 직원들과 첫 인사를 나누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일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시간이 이젠 제 삶에서 크고 당연한 생활이 된 것을 느낍니다. 제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를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현 두 달 동안의 공사생활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 첫 임용 당시 가졌던 기대보다 훨씬 즐거웠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공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업무적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이 배워야 하겠지만, 첫 직장 생활이라 그런지 그런 배움마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재민 저는 입사하고 얼마 안돼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봉합 수술을 하고 입원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들어간 지 얼마 안됐는데 팀에 해를 끼친 것 같아서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팀장님이 제게 직접 연락을 주시고는 '부담 갖지 말고 다 나올 때까지 몸조리 잘 하라고 말씀해주셨고 덕분에 일주일간 잘 치료받고 무사히 복귀했어요. 팀장님과 선배님들의 배려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좋은 분들을 만나서 하루하루 즐겁게 팀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Q 편집실 : 취임 이후 사장님이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은 어떤 것이지요.

김정학 사장 우리 공사가 2023년 대한민국 최고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 공사를 순회하며 현장을 파악하고 내부의 현안을 점검하며 우리 공사에 대해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노사 관계를 원만히 풀어나가고 윤리경영을 실행할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취임 한 달 만인 7월 15일 '노사상생 합의 조인식'을 개최하며 직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 투명하고 열린 경영실현을 위한 밑바탕을 다졌습니다. 특히 전사 윤리경영 체계 구축 및 노사 소통 강화를 위해 소통상생협력실을 사장직속으로 신설하여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윤리문화 및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청렴이 강조되었던 기존 윤리헌장에서 인권, 평등, 공정거래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윤리·인권헌장을 개정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사로 성장하기 위해 윤리·인권 경영의 실천의지를 담아 노사가 함께하는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는 사람을 위한 기업으로서 당연한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Q 편집실 : 신입사원 여러분, 사장님께 하고 싶은 질문 있으세요?

백승환 방금 사장님께서 윤리경영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윤리경영TF에 속해 있어 더 관심이 갑니다. 공사의 윤리문화 구축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사 직원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솔선수범한다면 우리 공사는 청렴하고
윤리적인, 건강한 기업으로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학 사장 우리 공사는 그냥 일반 기업이 아닙니다. 공기업이고, 도민의 기업이기 때문에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겠죠. 하지만 우리 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청렴과 윤리가 가장 최상위 가치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공사가 청렴하지 못하게 일을 처리하면 도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동료입니다. 공사 직원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솔선수범한다면 우리 공사는 청렴하고 윤리적인, 건강한 기업으로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곽대민 사장님께서서는 36년간 공직생활을 해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3개월차인 저희에게 공유해주실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김정학 사장 어떤 자리에 있던 스트레스 받는 건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가능하면 스트레스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스트레스에 반응하면 제가 지는 것이라고 되새기면서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오면 바로 반응하지 않고 조금 참았다가, 제 스스로 냉각기를 가졌어요. 그래도 답답하면 풀릴 때까지 걸었습니다. 주로 용두암과 해안도로를 많이 걸었는데, 한 시간 정도 걷다보면 스스로 정리가 되더군요.

Q **편집실** : 사장님께서 신입사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씀은 어떤 것이지요.

김정학 사장 조직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잘 파악하려면 전임자의 업무를 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상사의 업무 지시가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한 번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상사의 지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지시한 것이니 한 발 물러나서 시간을 들여 검토한 후에 다시 보고하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을 잘 파악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파악했으면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 꾸준히 노력하고 한층 발전해 전문가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업무에 임하며 공사의 미래 주역으로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은 조직과 업무에 적응하느라 힘든 점도 많겠지만 서로 다독여주기도 하며 공사와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Q **편집실** : 지금 공사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앞으로 구상하고 계신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김정학 사장 최근에 '8대 중점 추진전략'을 입안하고 발표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하겠지만, 크게는 각 사업 활성화 전략과 공사 내부 혁신 전략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제주삼다수 사업은 '제주삼다수 매출액 3,000억 원 시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익성을 바탕으로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감골·음료사업 활성화, 사회공헌사업



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사 내부 혁신은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할 부분입니다. 청렴도 '등급', 공기업 평가 '가등급'을 목표로 대한민국 최우수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안전·품질 중심의 시스템 구축, 스마트 사옥 건립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공사의 미래를 위해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입사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사 구성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Q **편집실** : 마지막으로 공사 임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정학 사장 2020년이 약 3개월 남은 지금, 우리는 다가올 2021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 내외부의 성과와 보완점을 정리하고 칭찬과 반성을 통해 앞으로 1년 간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민의 공기업으로서 한 해 농사를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다짐합시다.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뉴 노멀' 등 코로나 19 발생 이후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져만 갑니다. 이는 우리가 사업을 펼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훨씬 많아진다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반응하여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오의 한마디



김정학 사장
지난 25년간 제주의 공기업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 왔습니다. 앞으로의 25년도, 그 너머의 미래에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후세의 이정표가 되도록 희망을 일궈 나가겠습니다.



총무팀 강다민
잘 배우는 신입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선배님들의 노하우나 이전 업무를 잘 배우고 흡수해서 공사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삼다수생산팀 이재민
새로운 설비 등 앞으로 배워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잘 익혀서 회사 내에 꼭 도움이 되는 그런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수자원연구팀 강수연
조금은 진부한 각오일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업무를 맡더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힘이 될 수 있는 신입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윤리경영TFT 백승한
제주개발공사의 일원으로서 청렴하고 건전한 공사문화 조성과 공사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 열심히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제주개발공사 8대 중점 추진 전략 2023 대한민국 최우수 공기업을 위하여

제주개발공사 김정학 사장은 창립 25주년에 따른 제2창업정신으로 '2023 8대 중점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지난 8월 말 2023 중점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2023년 대한민국 최우수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주개발공사의 새로운 전략을 살펴보자.

정리 편집실 사진 안중근



1. 제주삼다수 매출액 3,000억 원 시대 달성

3,000억 원

- 내륙물류거점, 자동화 창고 등을 통한 영업환경 개선으로 2023년 3,200억 원 매출 달성
- 중국, 미국 등 제주삼다수 해외 수출 확대로 2023년 1만 톤 달성
- 친환경(Eco-Friendly) 생산설비 도입을 통한 제주삼다수의 진화

2. '2+5 지역발전 공공개발사업' 확대

- 공공임대주택 공급 2천호 달성
- 5대 지역발전 공공사업 추진(미래세대 위한 신규 공공택지 조성, 스마트 그린산업(물류) 클러스터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적극 추진, 주거복지센터 확대, 공공임대주택 서비스 체계 개선)

3. 감귤·음료사업 흑자 기반 마련

- 감귤 농축액 판매단가 현실화로 매출액 증가
- 감귤부산물 자원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노후설비 개선을 통한 농축수율 및 품질 향상
- 감귤공장 연중가동체제 방안 마련

4. 어려운 사람들의 기둥이 되는 JPDC형 사회공헌사업 실현

- 행정(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사회공헌사업 확대
- 도내 기업·단체와 협업 통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
- 공사 업(業)과 연계한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5. 대한민국 최우수 공기업-청렴도 '1등급', 공기업 평가 '가등급' 달성

- 시장 직속 소통상생협력실 신설, 2023년 공사 청렴도 '등급' 달성
- 업무 시스템 혁신을 통한 2023년 공기업 평가 '가등급' 달성

6. 좋은 일자리 지속 창출,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 '함께 소통하는 직장, 일하기 좋은 직장, 노사가 행복한 직장' 구현
- 임금체계 현실화 및 소통 기반의 노사협력체계 구축
- 뉴스사문화 정착을 통한 2023 노사문화 대상 수상

7. 세계적 수준의 먹은물 연구체계 확립

- 국가공인 수질분석기관 지정으로 대외적 공신력 확보
-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연구교류 협력 강화
- 과학적 취수원 관리모델 구축 및 수자원가치 확대 연구 강화

8. 지역균형발전 주도하는 '랜드마크적 스마트 사옥' 건립

- 공사 제2의 창업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약기반 선언
- 제로에너지빌딩 구현 및 첨단 스마트 환경 기반의 사옥 건립
-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오피스 등 사옥 활용 다각화

Team

안정 속의 잔잔한 개혁, What's New?

소통상생협력실

소통과 협력으로 제주개발공사의 미래를 준비한다

제주개발공사는 노사선진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투명경영·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시장 직속으로 '소통상생협력실'을 신설했다. '안정 속의 잔잔한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인 소통상생협력실에 대해 알아본다.

정리 편집실 사진 안종근



본 칼럼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강화 이전에 진행했으며, 촬영 전후 참가자, 스태프 전원의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노사협력TFT와 윤리경영TFT로 구성된 소통상생협력실 신설
 건전한 노사관계 재정립을 위해 신설된 소통상생협력실. 공사는 기존 노사관계 전담부서인 노사협력TFT의 정규 조직화를 대비해 노사협력TFT와 윤리경영TFT로 구성된 '소통상생협력실'을 확대·신설했다. 소통상생협력실은 사장 직속실로서 노동조합 주요 간부와 노사협력회의를 수시 진행하며,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소통채널을 운영한다. 또한 여가친화기업 인증 취득을 통해 여가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노동조합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취임사에서 밝히셨지만, 사장님께서 윤리, 투명, 건전한 노사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렴, 윤리, 인권을 전담할 윤리경영TFT를 신설하고 기존 노사협력TFT를 강화해 소통상생협력실을 만드신 의도는 강력하고 신속하게 경영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또한 윤리경영과 투명한 조직문화 모두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윤리경영TFT 강무경 팀장은 “주위에서 ‘힘들겠다, 할 일이 많다, 기대가 크다’는 격려의 말을 많이 들었다”며 미소 짓는다.

노사협력TFT 한정학 팀장은 ‘주위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어 달라는 직원들의 기대의 표현이

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가끔 ‘노사협력TFT는 사측인가, 노측인가 아니면 중립인가’ 묻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노사협력TFT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위치라고요.”

올해 청렴도와 부패방지시책평가 2등급 달성 목표

윤리경영TFT의 올해 목표는 명확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청렴도 2등급’과 ‘부패방지시책평가 2등급’을 달성하는 것, 그리고 체계적인 윤리, 인권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올해 목표인 청렴도 2등급 달성을 위해 윤리현장 개정을 시작으로 공모전, 찾아가는 청렴의 장, 청렴버스킹 등 다양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한다. 각 팀별로 청렴지킴이를 지정, 이들을 통해 부서 내 부패행위와 불투명한 업무 처리 등 사례와 의견을 모아 업무에 반영해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청렴, 윤리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ISO37001(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 표준) 등 국제기준을 우리 공사의 실정에 맞게 도입해 우리 공사만의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인권경영 부문에서는 ‘갑질 근절’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리경영TFT 강무경 팀장은 “짧은 시간 동안 공사 조직이 커



공공 부문 “윤리·인권·공정” 선도기업 도약

- 내·외부 청렴의식 제고
- 반부패 실행력 강화
- 갑질 근절 등 인권 존중 문화 구축

“202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달성을 위한 新 노사관계 구축

- 단체협약 실천방안 마련 및 실행력 확보
- 노사상생 협력체계 구축 및 실천
- 노사관계 증진 사례 연구 및 프로그램 운영
- 혁신적 인사·노무제도 개선을 통한 선진 노사문화 구축
- 여성과제 발굴 및 시행을 통한 노사 신뢰문화 조성

청렴, 윤리, 인권을 전담할 윤리경영TFT를 신설하고 기존 노사협력TFT를 강화해 소통상생협력실을 만드신 의도는 강력하고 신속하게 경영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지고 다양한 인력이 충원되면서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소위 ‘꼰대, 라떼’로 대표되는 세대간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한 밑작업으로 빠른 시간 내에 직장 내 갑질 인식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위 직급과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갑질 사례를 조사, 취합해 전사에 공유하여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 올해 하반기까지 공사 외부에 서버를 둔 신고센터를 마련,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직장 내 갑질을 포함한 사내 불평등, 불합리 요소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노사 소통으로 단체협약 이행 노력

“노사협력TFT의 우선 목표는 단체협약을 모두 이행하는 것입니다. 올해 1월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우리 노사협력TFT가 신설되어 꾸준히 단체협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현재 97.6%가 이행 또는 이행완료 예정으로 올해 내 완수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남은 미이행 사항을 완료하기 위해 우리 노사협력TFT 직원들이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사협력TFT 한정학 팀장은 “대외적으로 2020년 여가친화기업 인증, 202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수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친다.

노사협력TFT는 올해 말까지 세 가지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첫째 하위직급 직급개편 및 임금체계 개선, 둘째 인사노무제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근로조건 개선, 셋째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 교육 프로그램 및 여성과제를 포함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소통과 협력으로 제주개발공사의 미래를 개척해갈 소통상생협력실, 제주개발공사만의 진정한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갈 이들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많은 의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소통상생협력실 김용덕 실장

우리 소통상생협력실은 지난 7월 15일 전사 윤리경영 체계 구축 및 노사 소통 강화를 위해 산하 윤리경영TFT와 노사협력TFT를 신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부서 이름과 같이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개설하여 노사 간 소통을 기반으로 선진 윤리문화 및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의 상생 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며 임직원 여러분께는 공사를 위한 많은 의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윤리, 청렴, 건전한 노사관계를 내재화하도록



윤리경영TFT 강무경 팀장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말로 공자가 “70세에는 마음 가는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부분이지요. 저의 포부는 윤리와 청렴, 건전한 노사관계에 대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견고하게 발전시켜서 중국에는 우리 공사 모든 직원들이 윤리와 청렴, 건전한 노사관계를 내재화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말씀처럼 자신이 생각한대로 행동하더라도 어긋나지 않도록 말이지요. 제주개발공사 직원이라 하면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청렴하다고 공사 관계자와 제주도민들이 인식하는 날까지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깨어짐



노사협력TFT 한정학 팀장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태어나려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선 과거의 방식과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힘들지만 나 스스로 투쟁하며, 그 알들을 깨고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포부이자 바람입니다.



단일공장으로는 국내 최고, 최대 규모 갖춰

무인 운반 장치를 이용한 원부자재 이송 시스템도 갖췄다. 프리폼, 캡, 라벨 등 원부자재를 직접 사람이 운반하지 않고 무인 운반장비(AGV: Automatic Guided Vehicle)와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으로 저장·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무인화, 자동화를 실현하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재고량과 사용량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해 효율적으로 재고를 관리할 수 있다.

제주삼다수는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통해 연간 생산 능력 130만 톤, 10억 병 생산체계를 갖추어서 단일공장으로는 국내 최고, 최대 규모를 갖추게 됐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최첨단 스마트팩토리 도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제주삼다수, 먹는샘물 시장을 선도하는 제주삼다수의 남다른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제주삼다수는 왜 똑똑할까?

대한민국 No.1 먹는샘물 제주삼다수는 생산과정부터 남다르다. 단일공장으로는 국내 1등 규모인 10억 병 생산 체제를 갖춘 제주삼다수는 2019년 최첨단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한 새로운 생산라인인 L5를 본격 가동하며 품질과 생산성을 강화했다. 똑똑한 제주삼다수 스마트팩토리의 이모저모를 만나보자.

글 신대섭 수포터즈(사내기자)



세계 최고의 생산속도를 갖춘 스마트팩토리 L5

국민생수 제주삼다수 스마트팩토리 생산라인 L5(Line 5)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속도를 자랑한다. 0.5ℓ 페트병 기준으로 분당 1,270병을 생산하는 생산능력을 갖췄다. 이런 생산능력이 가능한 것은 자동화, 연결화, 지능화를 구현한 최첨단 설비 덕분이다. 제주삼다수 공장 내 설비 전체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라인 모니터링 시스템(LDS: Line Diagnosis System)으로 불량률과 생산효율, 생산량 집계 등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데이터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분석해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실시간 전력감시와 공조제어, 품질이슈에 신속 대응 가능한 제품추적시스템을 갖추고 제품 경량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강화, 포장라인 2열 구성으로 생산성 향상 등도 실현했다.

스마트팩토리 L5 주요 특징



1. 실시간 생산관리 시스템
각종 생산 데이터 수집 및 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속도
0.5ℓ 페트병 기준 분당 1,270병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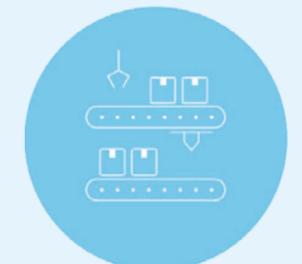
3. 최고의 안전 사업장
AGV(Automatic Guided Vehicle), 자동창고 등 원부자재 무인자동화 설비 도입



4. 제품 경량화 실현
0.5ℓ 페트병 무게를 1.5g 줄여 친환경 생산 기여



5. 자동 제어 시스템
실시간 전력감시 및 공조제어로 에너지 절감, 제품추적시스템 구축



6. 포장라인 2열 구성
설비고장 정지 시에도 1개 라인에서 70% 생산효율 유지 가능

국민 먹는샘물 브랜드, 22살 제주삼다수의 성장기

올해로 출시 22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대표 먹는샘물 제주삼다수. 시장점유율 1위, 고객만족도 1위, 브랜드파워 1위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 브랜드로 성장한 22살 제주삼다수의 성장기를 만나보자.

글 채진용 수포터즈(사내기자)

START 제주삼다수의 탄생

제주삼다수는 제주개발공사가 청정한 제주 지하수 난개발을 방지하고 먹는샘물 사업을 통해 제주도민에게 기여하기 위해 개발한 먹는샘물 브랜드이다. 강수량이 풍부하고 취수원 주변 오염원이 없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서 지하수 굴착을 시작해 5개월 만인 1995년 12월 지하 420m에서 제주삼다수의 원수인 천연화산암반수 개발에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먹는샘물 공장 건립에 착수, 1998년 1월 공장을 준공하고 3월에 제주삼다수가 0.5ℓ와 2.0ℓ 두 종류로 첫 출시됐다. 이어 4월에는 미국 FDA와 일본 후생성의 수질검사기준에 합격해 품질의 신뢰도를 더욱 높였다. 제주삼다수는 출시 이래 3개월 만에 업계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제주삼다수 원수 개발 성공



제주삼다수 공장 준공



제주삼다수 출시



미국 FDA, 일본 후생성 수질검사기준 합격

GROW 제주삼다수의 성장

제주삼다수의 성장세에 발맞춰 2008년 7월에는 세번째 신규 생산라인 L3(Line 3)를 기존 연 30만 톤 규모에서 70만 톤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2010년 11월에 G20 정상회의 공식 협찬으로 세계에 제주삼다수를 알리는 기회가 됐다. 2014년 11월

에는 제주삼다수의 해외수출 확대와 세계적인 관광지 제주도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제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를 개최했다. 2016년 3월에는 제주삼다수가 미국 LPGA투어 공식 먹는샘물로 지정되며 제주의 가치를 세계에 알렸다.



제주삼다수 증산설비 도입



G20 정상회의 공식 협찬



제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개최(KLPGA투어)



미국 LPGA투어 공식음료 지정

JUMP 제주삼다수의 도약

2018년 제주삼다수는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20년을 위한 도약을 시작했다. 2018년 6월 국제식품품질평원(ITQ)에서 개최한 'ITQ 국제 식품로 품평회'에서 3스타를 획득했다. 이듬해인 2019년 2년 연속 3스타를 획득해 맛과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2020년에도 3스타 획득과 함께 '크리스탈' 등급을 획득, 국내 No.1 생수 브랜드로서의 위상은 물론 제주 지하수와 국내 먹는샘물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세계에 알리게 됐다.

2019년 4월에는 스마트팩토리 기반의 새로운 생산라인 L5를 준공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혁신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플라스틱 문제가 전지구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 2019년 9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했다. 22살 제주삼다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브랜드에서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는 제주삼다수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ITQ 국제 우수 미각상' 3 STAR 수상



신규 생산라인 L5 준공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



'ITQ 국제 우수 미각상' 크리스탈 등급 획득

*ITQ 국제 식품로 품평회는 ITI 국제 식품로 품평회로 명칭을 변경함

새콤 시원한 히비스커스티

여름의 막바지인 요즘, 새콤 시원한 히비스커스티로 여름의 마지막을 즐겨보자. 히비스커스티는 상쾌한 신맛으로 신진대사를 높이고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무카페인 허브티인 히비스커스티는 시럽이나 과일향을 첨가하면 새콤달콤한 매력이 있어 남녀노소 모두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제공 한국티소믈리에연구원(www.teasommelier.kr)



구연산의 신맛이 피로를 없애주는 히비스커스

히비스커스는 우렸을 때 아름다운 루비 색을 띠는 허브로 상쾌한 신맛이 특징이다. 이 신맛은 구연산이나 히비스커스산에 의한 것으로 신진대사를 높이고 육체피로를 풀어주는 작용을 한다. 이뇨 효과도 뛰어나서 체내의 노폐물 배출을 촉진, 순환 불량이나 부기, 숙취에도 좋으며 붉은 색소는 안토시아닌계 색소로 눈의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에는 고혈압 등의 생활습관병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재료 히비스커스 15g, 물 300ml, 찬물 100ml, 얼음 적당량, 탄산수
* 시럽 혹은 과일청 등을 첨가하면 더욱 맛있는 히비스커스티를 즐길 수 있다.

1 히비스커스티



1 히비스커스 15g에 물 300ml를 첨가해 냉장실에서 10~15시간 냉침한다.
*히비스커스 양은 개인 기호에 맞게 조절한다.



2 다 우려진 찻잎을 거름망에 걸러내면 히비스커스 농축 티가 완성된다.



3 2번의 냉침된 히비스커스 농축 티를 찻잔에 1/4 정도 붓는다.



4 찻잔에 시원한 물을 적당량 부어 완성한다.

2 아이스 히비스커스티



1 히비스커스 농축 티를 준비한다.
*히비스커스 15g + 물 300ml, 냉장실에서 10~15시간 냉침



2 유리잔에 얼음을 적당량 넣고 냉침된 히비스커스 농축 티를 잔에 1/4 정도 붓는다.



3 시원한 탄산수를 적당량 부어 완성한다.





바다와 바람이 만든 보물 마을, 구좌읍 김녕리

김녕리는 제주공항에서 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 '부(富) 하고 편안(平安)한 마을'이라는 뜻을 지녔다. 옛 이름은 '짐녕, 김녕'이다. 김녕(金寧)이라는 한자 표기는 고려시대 김녕현(金寧縣)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녕리는 현재 동성동, 신산동, 청수동, 봉지동, 용두동, 한수동, 대충동, 남흘동 등 8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구좌읍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글, 사진 김윤정 여행작가 일러스트 하고고

김녕향이 보이는 영등물 도대불 전망대

한차례 강풍과 먹구름이 휘몰아치더니 평온한 날이 찾아온다.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고 태양빛도 강렬하지 않다. 한적하게 바다를 걷고 싶다. 일주도로를 타고 쪽빛 바다와 맑은 하늘이 드넓게 맞닿은 구좌읍 김녕리 마을로 향한다.

김녕리 마을 초입, 해녀 마을을 알리는 상징탑이 보인다. 김녕리 마을이다. 멀리 김녕향이 보인다. 전망대로 바로 가자니 마음이 설설하다. 남흘동 정류소까지 걷는다. 남흘동 당을 지키고 있는 폭낭(팽나무)의 녹음이 짙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김녕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도대불 전망대로 향한다.

전망대로 오른다. 속칭 영등물이라 불리는 김녕 바다와 마주한다. 바람이 불어서일까. 물결이 일렁이고 파도가 싸아 밀려온다. 시원하게 펼쳐진 푸름과 초록, 바다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소리들이 마음의 찌든 내음을 쓸어준다. 오롯이 바다를 바라보다 전망대를 내려온다. 꼬마 해녀 삼총사가 먼저 눈에 띈다. 해녀 소형물인데 그 모습이 친근감 있고 귀엽다. 키 작은 꼬마 해녀들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앉고 일어나기를 몇 번이나 반복한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난다.

윤씨하르방당에 들어선다. 사각형 모양의 담이 산담처럼 낮게 둘러 있다. 담 안에는 마치 사람을 닮은 듯 혹은 동물을 닮은 듯 보이는 석상이 있다. 그 옛날 바다에서 출현했다는 미륵이다. 석상은 주민들의 소원을 받아주고 아픔을 같이 했다. 오랜 세월이 저절로 느껴진다.

마을 안길에 이어지는 검은 돌담

한적한 해안 산책로를 잠시 벗어나 마을 안길을 걷는다. 김녕리를 걸으면 환해장성을 비롯해 옛 등대, 올렛담, 축담, 울담, 흑룡만리 발담 등 여러 유형의 제주 돌문화 유적을 마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을 안길도 검은 돌담으로 끝없이 이어져 있다. 강한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 쌓여진 돌담은 높고





튼튼하다. 헛터가 보인다. 사람이 없는 빈자리에 잘생긴 폭낭(팽나무) 하나가 환철하게 서 있다. 폭낭 옆을 지키는 소독통의 파란 색깔이 유난히 눈길을 끈다.

마을 삼촌들이 요새는 무슨 농사를 짓고 있는지 사뭇 궁금하다. 길을 걷다 보니 밭에는 마늘(마늘)이 많이 심어져 있다. 울레 안에 마늘종 말리는 풍경도 간간히 보인다. 헛터에 잠시 앉는다. 멀리서 동네 삼촌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해녀 삼촌들이다. 물질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등에 짊어진 자루의 무게가 조금은 버거울 만도 한데 웃음꽃이 지지 않는다. 마치 '살은 이런 거다'라고 소리치는 것 같다.

마을 안 구불구불 이어진 검은 돌담길을 걷고 걷다가 다시 바다로 향한다. 바다 앞을 바라보는 빈 의자들이 마음에 걸려서일까. 지난 계절을 생각하니 전에 없이 바다가 쓸쓸하다. 김녕 서포구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신비로운 바닷속 용천수 청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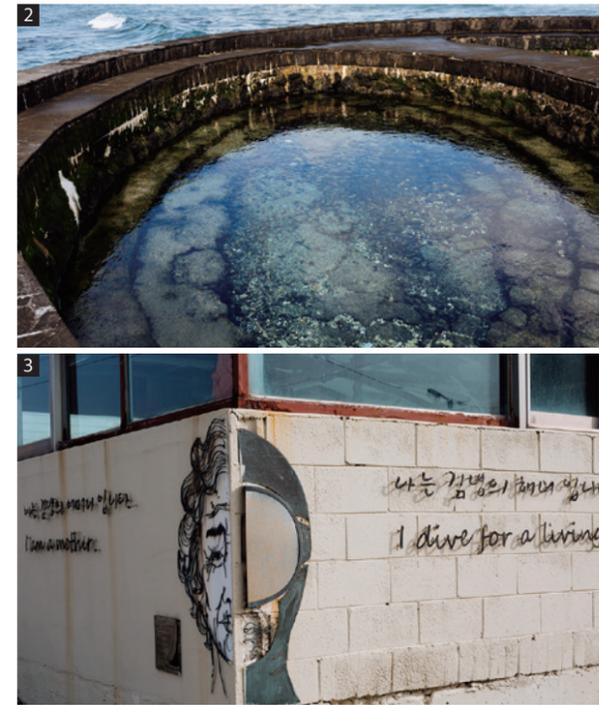
남흥동 아래 바닷가로 한수해로 불리는 김녕 서포구는 울레길 20코스 출발지다. 여행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다. 스탬프를 찍으며 설레는 모습에 더불어 행복감을 느낀다. 안내판에 적혀 있는 김녕리의 역사를 읽는다. 김녕리는 1914년 일

제강점기 때 동김녕리와 서김녕리로 분리되어 주민들이 갈등을 겪었고 2000년에 다시 하나의 마을로 통합되어 지금에 이르렀다는 이야기가 흥미롭다.

바다를 따라 걷는다. 용천수 청굴물로 향하는 길, 바닷길(바닷길)이 보인다. 바닷물에 조금 잠기긴 했지만 바다로 향해 나 있는 길의 모습이 또렷하다. 지금쯤 청굴물에도 물이 차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친다. 발걸음을 재촉해야 해야 하나 마음이 조금해진다. 서두르지 말자. 허락된 인연이라면 맑은 물이 용출되는 청굴물을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바닷길을 걷는다. 끝까지 갈 수가 없다. 바닥에 구부려 앉아 넘실대는 바닷물을 물끄러미 지켜본다. 바다와 바람이 만들어 내는 소리에 귀 기울인다. 이 소리 참 좋다.

황급히 길을 가는 삼촌의 모습에 덩달아 몸을 움직인다.

‘삼촌 청굴물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마십’
‘청굴물, 나 따라오라 거기 잘도 멋진 곳이어’
‘아직도 동네 삼촌들이 청굴물을 사용했수광’
‘옛날에는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해신디
이젠 안 해, 경해도 여름엔 사람들이
목욕하래 온다. 저쪽(저기)에 가면 있져’



- 1. 바닷길
- 2. 청굴물
- 3. 김녕금속공예벽화마을
- 4. 성세기말 옛 등대

담벼락 미술관 김녕금속공예벽화

모랫밭물, 고냥물, 게웃샘물, 청굴물 등 해안 마을 김녕리에는 용천수가 많다. 청굴물은 맑고 차갑기로 유명하다. 여름철이면 김녕리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른 마을에서도 병을 치료하기 위해 모여들어 주변에 이삼일씩 머물면서 물을 맞고 가던 물이다.

새삼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른다. 해마다 무더위가 찾아오면 할머니는 나와 형제들을 데리고 물을 맞으러 다녔다. 할머니 생각에 잠겨 있는데 어른신이 성큼 다가온다. 물을 한 번 보더니 익숙한 자세로 우미(우뭇가사리)를 채취하기 시작한다. 우미가 나는 철이구나. 고개를 들어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인 조간대를 본다. 누군가가 부지런히 우미를 채취하고 있다. 고기잡이배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성세기 포구를 지켜왔던



옛 등대의 모습이다. ‘나는 김녕의 해녀입니다’ 글귀와 해녀 벽화도 보인다. 김녕리 서포구에서 성세기 해변까지 이르는 담벼락에는 숨은 그림처럼 금속공예벽화가 설치돼 있다. 해녀, 청굴물, 돛제 등 벽화는 김녕리 주민들의 삶을 이해하기 쉽게 말해준다. 해변을 따라 걸으며 담벼락에 붙은 벽화를 찾아가다 보면 어느새 빨간 등대가 보인다.

화려하지 않아 더 찾게 되는 마을, 김녕리

성세기 해변을 바라본다. 바다는 맑고 하늘은 더 없이 푸르다. 하얀 모래가 곱게 펼쳐진 해변은 파도 소리마저 고요하다. 그 침묵에 잠시 눈을 감아 본다. 복잡한 생각들을 날려버린다. 방파제 바닥에는 홀로 생각에 잠긴 누군가가 바다를 훑어 쳐 바라본다. 빨간 등대 앞에는 사람들이 즐거운 추억을 남기기 위해 포즈를 취한다. 하얀 모래 위에는 엄마와 어린 소녀가 함께 다정한 시간을 보낸다.

일상의 회복을 바라며 우두커니 서서 김녕리 바다를 찾은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 그들도 나와 같지 않을까. 옥빛 바다와 검은 돌담 그리고 바람 소리의 어울림이 아름다운 곳. 분주하지 않아 한적하게 걸을 수 있고 화려하지 않아 더 찾게 되는 곳 김녕리 마을이다.

김녕리 근교 여행지



① 도대불 전망대·윤씨하르방당

도대불은 항구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던 옛 민간 등대로 전망대에 오르면 김녕 바다가 펼쳐진다. 전망대 옆 윤씨하르방당은 윤씨가 바다에서 건진 돌미륵으로 당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 제주도 구좌읍 김녕리 김녕입구삼거리

② 김녕 서포구

올레길 19코스 종점이자 20코스 출발지다. 올레길 스탬프를 찍을 수 있고 김녕마을에 대한 설명도 얻을 수 있다. 김녕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쉬 수 있는 곳이다.

☞ 제주도 구좌읍 김녕리 4070

③ 김녕금속공예벽화마을

올레길 20코스 시작점인 김녕 서포구에서 성세기 해변까지 3km 남짓한 길이 벽화로 꾸며져 있다. 마을 재생 프로젝트에 젊은 작가들이 참여해 금속공예벽화 29점이 골목을 꾸미고 있다.

☞ 제주도 구좌읍 김녕항3길 18-16

④ 청굴물

김녕-월정 지질트레일 구간으로 15℃ 안팎으로 수온이 일정한 웅천수가 솟아오르는 곳이다. 만조와 간조 사이에 가면 풍성한 물이 가득한 청굴물을 만날 수 있다.

☞ 제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296



지금도 생생한 그날의 추억, 응답하라 JPDC!

‘응답하라 JPDC’ 사진 공모전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응답하라 JPDC’ 사진 공모전, 그 결과가 8월 20일 발표됐다. 제주삼다수와 함께, 동료와 함께 동고동락한 수많은 추억과 사연들이 가득했던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소개한다.

구성 편집실

최우수상



그해 겨울의 회상

2018년 2월, 폭설로 인해 공장 지붕에 눈이 산더미 같이 쌓여 직급과 상관없이 직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제설작업을 진행하면서 그해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품질관리팀 오용석

우수상



오우~그때는 젊었구려!

2006년 가을, 서귀포휴양림에서 워크숍 후 다음날 오전에 찍은 단체사진입니다. 현장에서 잘 나가던 이들이 14년이 지난 지금 탐장님, 과장님들이 되셨죠. 오우~그때는 젊었구려!

삼다수생산4팀 고용훈

우수상



태풍피해복구 번개 동참

이재훈이 SNS에 제안한 태풍피해복구 번개에 삼다수봉사대가 동참했습니다! 태풍에 밀려온 해안쓰레기 청소를 하며 제주삼다수도 홍보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삼다수생산팀 송가영

최우수상



이젠 안녕~

2005년 8월 16일에 찍은 공장 전경입니다. L5 설비 도입으로 이제는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풍경이 되었네요. 저 곳에서의 추억이 아련합니다.

영업2팀 김형철

최우수상



신규설비 준공식

2008년 8월 8일 L4 라인을 증설하며 열린 신규설비 준공식 기념사진입니다.

노사협력 TFT 한정학

우수상



희망의 빛을 품은 해발 1,950m의 제주삼다수

2020년 1월 1일 새해 첫날! 한라산 정상 백록담에서 제주삼다수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응원하며 희망의 빛을 품은 한 폭의 장면을 담았습니다.

전략기획팀 서성철

우수상



고씨도를락(함께 달리기)

2006년 6월 김녕국제마라톤대회에 공사 마라톤동호회 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참가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기회가 없어 아쉽네요.

경영지원본부 부성환

기타 최우수상 수상작 'L1 라인 생산설비 떠나보내던 날' 삼다수생산1팀 허상호 / 'TPM의 역사' 삼다수생산3팀 김동명

기타 우수상 수상작 '초심으로 돌아가자' 삼다수생산2팀 최인호 / '우리는 하나다' 총무팀 김지훈 / '안녕~창의관!' 노사협력TFT 임영재 / '2009년 한마음 단합대회' 개발팀 강제권 / '응답하지마라 2013' 노사협력TFT 홍재영 / '삼다수봉사대 우도 봉사활동' 전략기획팀 강성철 / '우리들의 옛 이야기' 사회가치팀 현승탁 / '제주삼다수 녹차의 탄생' 품질관리팀 정관우 / '웃으면 복이 와요' 삼다수생산팀 김대욱 / '2010년 하계 워크숍' 삼다수생산3팀 백기섭 / '2009년 품질관리팀 자원봉사' 품질보증팀 김승원 / '제주삼다수와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감귤가공팀 강미주 / '지금은 역사가 된 제주맥주 JESPI와 초창기 멤버들' 품질관리팀 고원준 / '생산지원본부 재능기부 봉사활동' 안전환경관리팀 이승호 / '삼다수의 원전을 알리다' 안전환경기획팀 문보영 / '응답하라 2016, 응답하라 JESPI' 마켓기획팀 신소영



골프 여제들의 뜨거운 대결, 2020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나흘 간 골프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골프 여제들의 뜨거운 대결, 2020 삼다수 마스터스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4라운드 대회로 치러진 이번 대회는 치열한 접전을 거듭하며 골프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구성 양근원 수포터즈(사내기자)

무관중 경기에도 뜨거운 관심 집중



최정상급 스타들의 축제, 2020 제주삼다수 마스터스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총 상금 8억 원, 우승상금 1억 6천만 원이 수여되는 이번 대회는 메이저대회로의 도약과 대회의 성장을 위해 기존 3라운드에서 4라운드 대회로 변경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지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는 전·현직 세계랭킹 1위인 톱클래스 골퍼들의 참여로 대회 전부터 주목받으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전 세계랭킹 1위 박인비(32, KB금융그룹), 유소연(30, 메디힐)과 현재 세계랭킹 1위 고진영(25, 솔레이), 2019 LPGA 투어 신인왕 이정은(24, 대방건설), 스윙의 정석 김효주(25, 롯데) 등 내로라하는 선수들이 총 출동했다. 또 지난해 아마추어 초청 선수로 출전해 깜짝 우승을 차지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던 유해란(19, SK네트웍스)의 타이틀 방어 여부도 관심을 모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지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는 전·현직 세계랭킹 1위인 톱클래스 골퍼들의 참여로 대회 전부터 주목받으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예측불허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진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본대회 전날인 29일에는 주요 출전 선수들의 공식 연습과 함께 포토콜, 공식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제주개발공사가 후원하는 프로 5명에 대한 후원 조인식이 진행됐다. 기존에 공사가 후원하는 박인비와 고진영, 오지현과 함께 제주출신 프로인 현세린(19, 대방건설), 임진희(22)를 추가로 후원하기로 했다.

팬들의 기대는 열띤 경기로 보답 받았다. 대회 첫날 디펜딩 챔피언 유해란 선수와 '대상 1위' 이소영(23, 롯데) 선수가 공동 선두에 오르며 치열한 승부를 예고했다. 유해란 선수의 독주 속 집중력 있는 플레이로 선두를 맹추격한 이정은(24, 대방건설), 3라운드 8언더파 64타로 새로운 코스레코드를 세운 KPGA 돌풍의 주역 임희정(20, 한화큐셀), 전통 강자 장하나(28, 비씨카드), 천재골프소녀의 재림을 보여준 김효주(25, 롯데) 등 매 홀 성적에 따라 순위가 요동치는 예측불허의 경기로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다.

디펜딩 챔피언 유해란, 와이어투와이어 우승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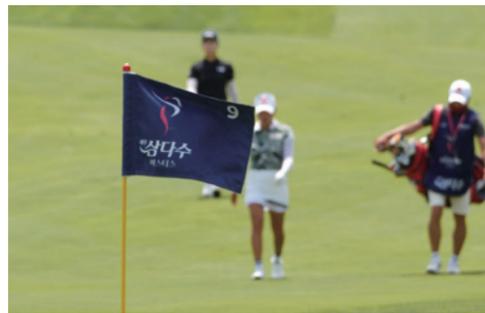
유해란 선수는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타수차를 벌리며 마지막까지 선두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최종합계 23언더파 201타로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23언더파 우승으로 2013년 MBN 김영주 골프 여자오픈에서 감하늘이 세운 최소 스트로크 우승과 타이 기록을 세우는 기염을 토했다. 이로써 유해란 선수는 가장 유력한 KLPGA 신인왕 후보 자리를 선점하게 됐다.

대한민국 대표 골프여제 박인비 선수는 캐디로 나선 남편 남기협 코치의 외조 속에 안정적인 플레이로 최종 11언더파를 기록하며 공동 15위를 차지했다. 부동의 세계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 고진영 선수 역시 기복 없는 안정된 플레이로 최종 10언더파를 기록하며 총합 10언더파로 공동 20위를 차지했다. 올해 KLPGA 투어에서 가장 주목 받는 선수 중 한 명인 유현주(26, 골든블루) 선수는 7개 대회 만에 처음으로 컷 통과에 성공하고 최종 8언더파 공동 25위를 기록하며 후반기 반전에 성공했다.

*와이어투와이어 : 골프에서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선두를 내주지 않고 우승하는 것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왜 인기있을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세계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별종의 별들의 경쟁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8일자 매일경제는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LPGA 투어 드라이브온 챔피언십'과 'KLPGA 투어 제주삼다수 마스터스'를 비교하는 흥미로운 보도를 했다. 두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를 소개하며 이들이 그동안 쌓아온 역대 승수를 분석한 것이다. 드라이브온 챔피언십에는 세계랭킹 2위 넬리 코르다와 4위 대니엘 강, 8위 이민

지 등이 참가했고, 이들이 거둔 LPGA 투어 승수는 24승이며 그 중 메이저대회 우승은 2승이다.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는 세계랭킹 1위 고진영과 10위 김효주, 11위 박인비, 13위 이정은 등이 참가했고, 이들이 거둔 LPGA 투어 승수는 무려 36승에 달하며 그중 메이저 대회 우승은 13승이나 된다. 해당 매체는 "미국 LPGA 대회보다 제주삼다수 마스터스가 무게감과 주목도가 높다"는 평을 했다. 대중에게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KLPGA 투어 하반기 첫 대회라는 점이다. 상반기가 끝나서 쉬는 동안에 많은 갤러리와 골프 시청자들이 선수들의 활약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러니 하반기 투어 첫 문을 여는 제주삼다수 마스터스를 찾게 되는 것이다. 실제 제주삼다수 마스터스는 SBS골프채널에서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해왔다. 2015년에는 KLPGA투어 역대 2위 평균 시청률인 0.781%를 기록했고, 2018년의 경우 평균 0.656%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당시 8월까지 치러진 대회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지난 6월 한 중앙언론은 '프로야구 시청률을 넘본다'는 평을 하기도 했다.

철저한 방역 하에 안전하게 경기 마무리



마지막 날 2년 연속 우승에 성공한 유해란 선수를 위한 시상식과 대회 시그니처로 자리 잡은 물허벅 세리머니가 펼쳐졌다. 또한 데일리베스트를 기록한 이소영(23, 롯데), 이소미(21, SBI저축은행), 임희정, 김지영(24, SK네트웍스)이 부상으로 프레드릭 콘스탄트 시계를 받았다.

제주개발공사는 안전한 경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갤러리 입장을 허용하지 않고, 도민과 꿈나무 선수들이 참여했던 프로암대회와 각종 부대행사들도 전면 취소했다. 대회 기간 중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방역과 관리 속에서 진행됐다. 사전 교육된 스태프들이 수시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대한 안내를 하는 등 모범적인 운영을 펼쳐며 대회 운영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Mini Interview

대회를 주관한 공사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유해란 디펜딩 챔피언

루키 시즌에 디펜딩 챔피언으로 대회에 나오는 기회가 잘 없는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성적을 거둬 기쁩니다.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회를 주관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

제주삼다수 마스터스는 골프 꿈나무들에게 힘을 주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먹는 샘물 1위인 제주삼다수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고 있는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태로 안전을 위해 무관중경기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를 넘어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는 제주삼다수와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본 칼럼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강화 이전에 진행했으며, 촬영 전후 참가자, 스태프 전원의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24시간 제주삼다수를 지키는 슈퍼 히어로

총무팀 경비직
정성한·박영준 반장

24시간 분주히 움직이는 제주삼다수 공장. 제주삼다수가 원활히 생산될 수 있도록 공장 현장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수문장들이 있다. 제주삼다수 공장을 지키는 총무팀 경비직 정성한·박영준 반장을 만나본다.

글 최정상 수포터즈(사내기자) 사진 안중근

Q.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성한 반장 경비직 정성한입니다. 2017년 3월 경비부문 1기로 입사했습니다.

박영준 반장 2019년 12월 30일 경비부문 4기로 입사한 박영준입니다.

Q. 경비직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정성한 반장 주요 업무는 공사 시설의 외부 출입 감시와 안내, 출입차량 통제, CCTV 모니터링 등이죠. 공장 전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예방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생산된 제주삼다수를 반출하는 차량을 비롯해 출입하는 차량 관리, 공장 안으로 들어오는 이들을 관리하고 안내하는 일을 합니다. 쉽게 말해 제주삼다수 공장과 감귤가공공장의 수문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는 현장 안전과 사고예방, 그리고 고객 응대라고 할 수 있어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 경비직을 가장 먼저 만나시는 셈이라서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공사 경비직은 몇 명이, 어떻게 근무하시나요?

박영준 반장 우리 삼다수 보안실에는 현재 6명이 일하고 있는데, 3조 2교대로 두 명씩 짝지어 근무합니다. 그러다보니 팀원들이 다 모이기 어렵지만 같이 근무하는 파트너와의 팀워크는 최고죠. 최근에는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입사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할까요.

Q. 출입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어려운 일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정성한 반장 이전에는 밖에서 종일 근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죠. 요즘처럼 덥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참 난감한 경우도 적지 않았고요. 지금은 입구에 보안실과 차량 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많이 편해졌어요.

박영준 반장 요즘은 코로나9로부터 공장을 지키기 위해서 발열 체크 등 출입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오시는 방문자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오시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게 번거로운 일이다보니 이해하지 못하는 방문자들도 가끔 있으세요. 그럴 때마다 상세히 설명 드리고 설득하는 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 경비직을 가장 먼저 만나시는 셈이라서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 우리 업무죠.

Q. 기억에 남는 일, 보람 있었던 일은 어떤 게 있으세요?

박영준 반장 최근에 보안실 내 선배님이 정년퇴직하셨어요. 퇴임 기념식 자리에서 '오랫동안 공사에 몸담고 일할 수 있어 행복했다'라고 인사하시는 순간 감동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성실히 일해 온 이 분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정성한 반장 공장 주변에 삼다수숲길, 자연휴양림, 마방목지 등 관

성실히 일해온 선배님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경비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광명소가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 공장 진입로로 들어오시는 관광객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시즌에는 하루에 5~6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곳은 제주삼다수 공장이라고 설명 드리고 찾으시는 곳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언젠가 노부부 두 분이 오셔서 길을 잘못 든 거 같다면서 주변에 식사할 데가 없는지 물으시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생각나서 근처에 좋은 음식점과 가실만한 곳을 상세히 안내해드렸어요.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그 노부부께서 제주를 떠나기 직전 제주공항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덕분에 잘 먹고 간다고, 고맙다고 인사하시는데 잊지 않고 전화 주시는 그 마음에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Q.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정성한 반장 우리 업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단순한 경비업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니 가끔 서운할 때가 있어요.

박영준 반장 맞아요. 저도 같은 제주개발공사의 직원인데, 보이지 않는 벽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선배님들의 꾸준한 노력이 있어서 최근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게 피부로 느껴 집니다. 최근에 '경비실'이라는 명칭도 '보안실'로 바뀌었구요.

Q. 업무에 임하는 각오, 그리고 올해 목표는 무엇인가요?

정성한 반장 공사의 2020년 슬로건이 '함께하는 우리, 변화하는 우리'입니다. 공사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2020년 목표 달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준 반장 입사 면접을 볼 때 '업무의 기본은 성실한 근무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끝까지 지켜 나가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내 이벤트인 체중감량에 도전하고 있는데, 꼭 성공해서 더 멋진 모습, 좋은 모습으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산지원본부 제주삼다수를 위해 뭉쳤다! 생산지원 어벤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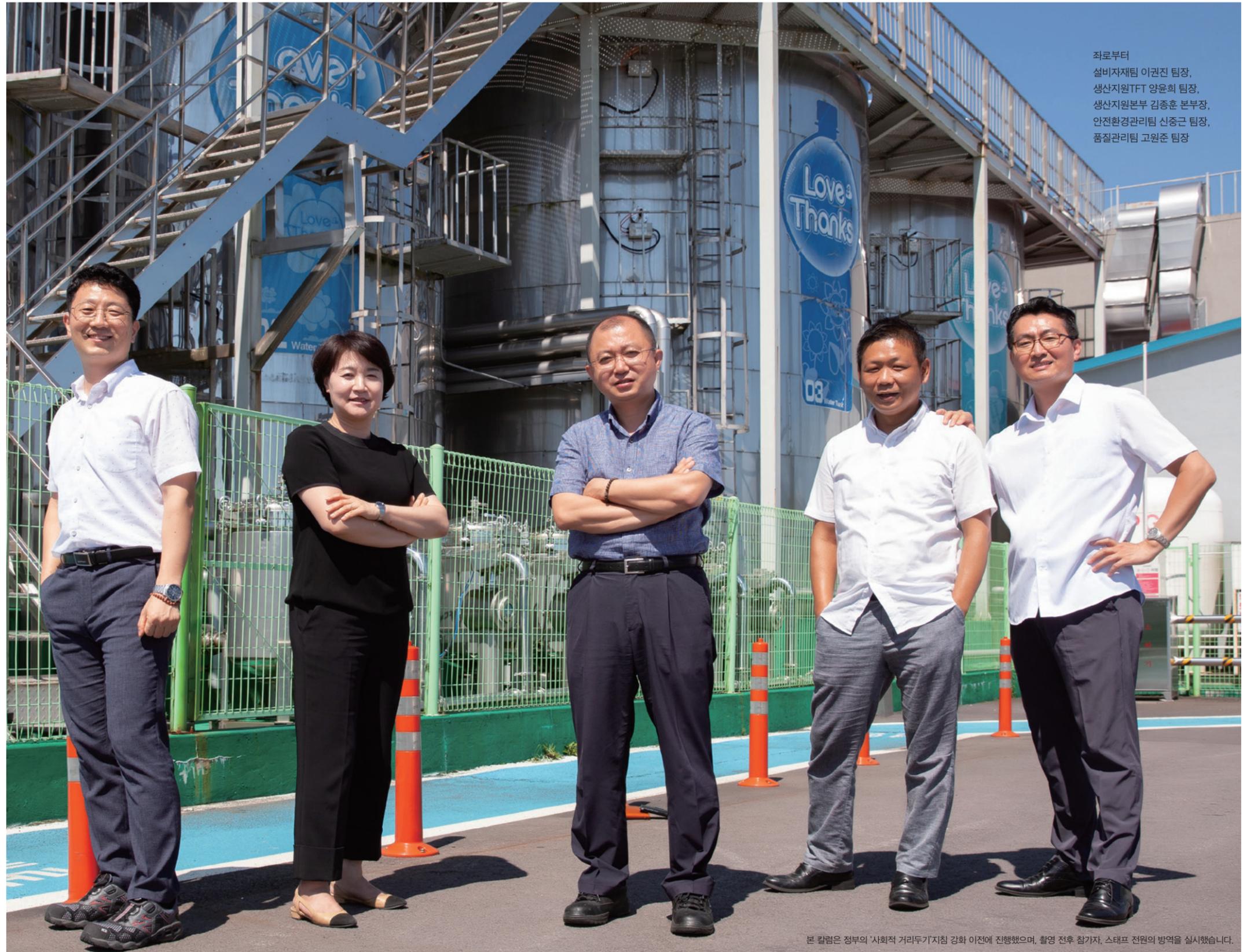
제주삼다수 생산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삼다수생산본부가 있다면, 그 뒤에는 생산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보이지 않게 노력하는 생산지원본부가 있다. 최고의 먹는샘물 제주삼다수를 묵묵히 뒷받침하는 생산지원본부를 만나보자.

글 고탐희 수포터즈(사내기자) 사진 안중근

편집실 : 세계로 도약하는 제주삼다수를 물심양면 뒷바라지하는 생산지원본부를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중훈 본부장 우리 생산지원본부는 삼다수 공장 내 안전환경 관리, 제품 품질관리, 원부자재 및 유틸리티(전기, 용수, 에어) 관리, 시설물관리와 구내식당 등을 운영하는 4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주삼다수 공장 직원들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동료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조금씩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많은 일들을 추진했고 어려움들도 많았지만, 생산지원본부 팀장님들이 업무를 잘 추진해 주고 계십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실무에 어려움이 많지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신중근 팀장 우리 안전환경관리팀은 이름대로 공장 내 안전 관리



좌로부터
설비자재팀 이권진 팀장,
생산지원TFT 양윤희 팀장,
생산지원본부 김중훈 본부장,
안전환경관리팀 신중근 팀장,
품질관리팀 고원준 팀장

본 칼럼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강화 이전에 진행했으며, 촬영 전후 참가자, 스태프 전원의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장 방역관리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는데, 직원들의 자발적인 협력 덕분에 위기를 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사고 무재해 달성을 위해서 올해 초부터 꾸준히 준비해서 오는 10월에 소방시설안전관리 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현장 점검 인력 확충, 의무실 확대 등 안전한 현장 구축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지요.

이권진 팀장 설비자재팀은 제주삼다수 페트병과 뚜껑을 만드는 원부자재부터 시작해 유틸리티 설비, 전기관리, 예비품 등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자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오래된 설비를 교체하고 고효율 설비로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사용되는 설비부품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것이라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직은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어요. 독거어르신들의 집을 보수해주는 재능기부 활동을 2~3년간 꾸준히 해 왔는데, 올해는 아예 가지 못하게 되어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편집실 : 생산 업무는 생산량 같은 수치로 딱 드러나지만 지원 업무는 잘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생산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묵묵히 돕는 업무라 더 힘드시죠.

고원준 팀장 맞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일을 잘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우리 품질관리팀은 제주삼다수 공장의 품질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데, 사후 관리가 아니

라 사전 예방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주 조금이라도 품질에 문제가 생겼다 하는 순간 이미 신뢰도에 금이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전 예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선 품질관리 업무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원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중요한 업무로는 제주삼다수의 원수인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취수하고 공급하는 것과 원부자재 입고부터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과정에서 흠결없는 제품들이 생산되도록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강종호 본부장 : 우리 생산지원본부의 업무 성과는 삼다수 공장 내 직원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하는데 불편한 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직원들의 불만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 목표는 하나입니다. 다른 팀에서 회식할 때 불러주는 생산지원본부가 되자. 이게 지원 파트에서 일하는 우리에게 최고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생산지원TFT는 직원들에게 가장 밀접한 의식주를 책임지고 있어서 '지원 파트의 지원팀'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생산지원TFT 양윤희 팀장은 제주개발공사 창립멤버이기도 해서 '제주삼다수의 엄마'라고 할 수 있어요.

양윤희 팀장 우리 생산지원TFT는 직원들의 피복 등 비품 지원, 구내식당 운영, 시설관리를 맡고 있어요. 직원들에게 가장 밀접한 부서라고 할 수 있죠. 제주삼다수 공장이 세워진 지 20년이 넘다보니 건물에 조금씩 누수현상도 생기고 해서 올해

우리 본부 목표는 하나입니다.
다른 팀에서 회식할 때 불러주는
생산지원본부가 되자.
이게 지원 파트에서 일하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대대적으로 방수공사를 했어요. 올해 유난히 비도 많이 왔잖아요. 비만 오면 뛰어가서 확인하고 보수하느라 정신없었어요. 손이 많이 가고 힘들지만 조금 더 신경 쓰고 챙기면 직원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보람을 느껴요.

이권진 팀장 우리 설비자재팀도 올해 공장 전체 조명 2,500개를 LED로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생산 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하니 사전에 생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한정된 시간에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사실 우리 팀 업무가 현장 생산과 연관된 것이 많아서 조율하고 반영하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설비를 고쳐달라는 요청이 오면 현장 상황에 따라서 몇 차례의 설계 변경과 일정 조정이 필요하니까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좋다'고 말해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편집실 :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 그리고 하고 싶은 말씀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신중근 팀장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생산을 위한 설비가 다양한 만큼 위험요소는 어디나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 직원 모두를 위해, 현장의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권진 팀장 라인 증설 등 제주삼다수 공장 시설이 점점 늘어나

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한 눈에 모든 설비를 파악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를 만들고 싶습니다.

고원준 팀장 제주삼다수 하면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먹는샘물로 인정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먹는샘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팀원들의 역량을 키워서 세계 최고 먹는샘물 제주삼다수에 걸맞은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양윤희 팀장 직원 모두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팀이 되고 싶어요. 우리 제주삼다수 공장을 최고의 시설로, 근무하기 좋은 최고의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강종호 본부장 최근 김정학 사장님께서 취임식도 생략하시고, 제일 먼저 생산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사장님 현장 방문 시 생산라인 위주로 둘러보셨는데 이번에는 기계실, 예비품 보관실, 정수실 등 지원 시설을 다 둘러보시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우리 생산지원본부는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인정 속의 잔잔한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 이전에 선배로서 후배직원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일은 외면하면 편하고, 대면하면 힘들다'고 합니다. 일을 대면하는 순간은 힘들지만 해 내고 나면 본인에게 더 큰 힘이 되고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을 외면하지 말고, 대면하는 공사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주도민을 위해, 개발사업 전문성 업그레이드! 자격 취득 공사 직원 3인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개발공사 직원들이 자격을 취득하며 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공사 개발사업본부에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 보유를 증명하는 기술사를 획득한 개발팀 김기석 과장과 개발2팀 이병운 대리, 홍지호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편집실 사진 안종근

개발2팀 홍지호 과장 (건축사)

공공임대주택 건축설계와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진행하면서 제 업무의 최종 목표가 건축사 자격증 취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험을 준비하는데 5년이 걸렸는데 일 년에 단 한번, 추석 전주에 시행하는 시험이어서 항상 맘 편히 여름 휴가도 갈 수 없고 무더위에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했죠. 가끔 제 시험 도구가 사라지면 아들의 장난감 통을 뒤져서 찾곤 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는 초등학생이 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해하고 지지해준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제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것이 공사의 공공주택건설사업 추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발팀 김기석 과장 (토목구조기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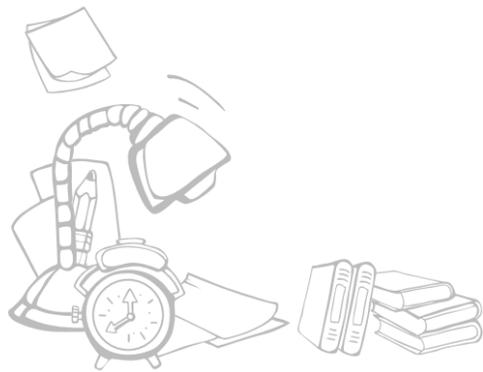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제 손으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꿈을 키웠어요. 그러려면 구조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24살에 구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결심했죠. 그때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는데, 현업을 하다보니 어느정도 내공이 생겨 다시 도전했어요. 3~4년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이들과 놀아주지도 못하고 도서관에 가는 상황이 많이 미안했고, 저를 이해해준 가족들에게 고마웠어요. 기술사 합격 통보를 받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지금부터라도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요즘 제주는 환경 이슈로 신규 개발사업이 어렵지만, 언젠가는 꼭 제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개발2팀 이병운 대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우연히 선배를 따라 학원에 갔다가 덜컥 등록한 게 지금까지 왔네요. 업무시간 외에는 오로지 공부만 하다보니 가족과 친구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자격증 공부를 몇 년씩 하냐는 핀잔이나 무시도 많이 당했어요. 처음 건축시공기술사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신혼여행 중 와이프와 다투던 중이었는데, 언제 싸웠냐는 듯 부둥켜안고 환호를 질렀죠.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건설안전기술사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과 노력을 쏟으며 최선을 다하다가 막상 그 일이 없어지니까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거 같아요. 그렇게 5년이 걸렸는데,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만큼 더 잘 활용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칼럼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강화 이전에 진행했으며, 촬영 전후 참가자, 스태프 전원의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노사상생 합의 조인식 상생 경영으로 재도약하다

제주개발공사 노사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노사는 상생 및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 노사상생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글, 사진 편집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지난 7월 15일 제주개발공사와 제주개발공사노동조합은 공사 경영진 및 노조 집행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조건'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노사상생 합의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인식은 직원의 처우 개선 및 복리증진, 투명하고 열린 경영실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열린 마음으로 서로 한걸

음 양보하면서 합의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노사 상생 합의 주요내용은 조직문화 및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등이다. 이를 위해 연차 사용을 촉진하고, 시간외근무 발생을 최소화해 인간비를 절감하는 자구 노력을 진행한다.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해 조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연차



본 촬영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강화 이전에 진행했으며, 촬영 전후 참가자, 스태프 전원의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66
소통상생협력실은 수시로 노동조합
주요간부와 노사협력회의를 진행하며,
임직원 간 소통채널을 확대한다
99



휴가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근무제 개편 등을 통해 시간외근무 발생을 35% 정도 줄인다. 복리후생과 관련, 제주연고가 아닌 원격지 근무자의 주거안정화를 위해 주택임차를 통한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임금체계와 관련해 매년 제주도에서 전달되는 임금인상을 적용에 있어 하후상박을 원칙으로 합리적 수준의 임금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것이며 나머지 조항들도 상호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사관계 전담부서인 노사협력TFT의 정규조직화를 대비, 노사협력TFT과 윤리경영TFT으로 구성되는 '소통상생협력실'을 확대·신설했다. 소통상생협력실은 수시로 노동조합 주요간부와 노사협력회의를 진행하며, 임직원 간 소통채널을 확대한다. 또한 여가친화 기업 인증 취득을 통해 여가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노동조합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등 근로조건'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소통채널 확대로 건전한 노사관계 재정립

이번 합의는 지난 1월 13일 체결한 2020년 단체협약에 따른

Mini Interview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으로 재도약하도록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



노조가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을 줄이는 자구노력을 해준 만큼, 경영진도 노조의 말에 적극 귀를 기울이고 소통할 것입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통해 재도약하고 도내 1등 공기업으로서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노사 간 신뢰가 회복되는 첫 걸음

하준석 제주개발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노사 간 신뢰가 무너진 채 안타까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이번 노사상생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노사 간에 신뢰가 회복되고 갈등이 해소되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사 적극행정면책 제1호 사례

제주의 공익을 위해 한걸음 더.

제주개발공사는 제주 지역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2017년부터 공동물류센터를 대항 운영하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 지난 2019년 도내 영세 기업의 자금난 방지를 위해 공사 예산을 전용한 사례는 공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 추진한 것으로, 공사 적극행정면책 제1호 사례가 되었다.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 사업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물류관리팀 김신범 대리에게 공동물류센터와 적극행정면책에 대해 들어보자.

글 채진용 수포터즈(사내기자) 사진 안중근

Q. 지난해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요.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사업은 육지에 비해 과도한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공사는 2017년부터 운영 대행을 맡고 있는데, 최근 공동물류센터가 활성화 되면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동량이 전년대

비 316.5%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당초 배정된 위탁대행 사업비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버린 것이죠. 1차로 7월에 추가예산 1억 5천만 원을 배정받았지만 두 달 만에 다 소진됐습니다. 추가 사업비 지급 가능 시기가 12월이어서 어쩔 수 없이 10월과 11월 물류비 지급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위탁운영사업자도, 물류센터 이용기업도 대다수가 영세업체라서 물류비 지급이 지연되면 자금난을 겪을 위험이 컸습니다.

Q. 당시 팀 내에서 고민이 많으셨을거 같습니다.

우리 물류관리팀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 물류관리팀에서 물류비를 적기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며 예산담당부서, 감사담당부서와 논의했습니다. 공사 자체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게 되어 감사에서 '부서주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공익성 제고가 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공사 자체 예산 전용을 추진했습니다.

Q.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이 건은 나중에 감사와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 습니다. 하지만 공사에서 이번 사례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 기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라고 판단해서 지난 해 마련된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했죠.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 차상 하거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 도로 작년부턴 실시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올해 적극행정면책 이 결정내려져서 공사 적극행정면책 제1호 사례가 됐습니다.

Q. 이번 일을 통해 느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내심 불안하기도 했는데, 적극 행정면책결정이 내려져서 너무 기쁩니다. 어려운 의사결정을 해주신 임원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검토 과정 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예산담당, 감사담당부서에도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앞으로 공익성, 적극성 및 고의 또는 중대한 하자가 없는 업무의 경우 추후 감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공사 모두가 노력해서, 향후 감사가 두려워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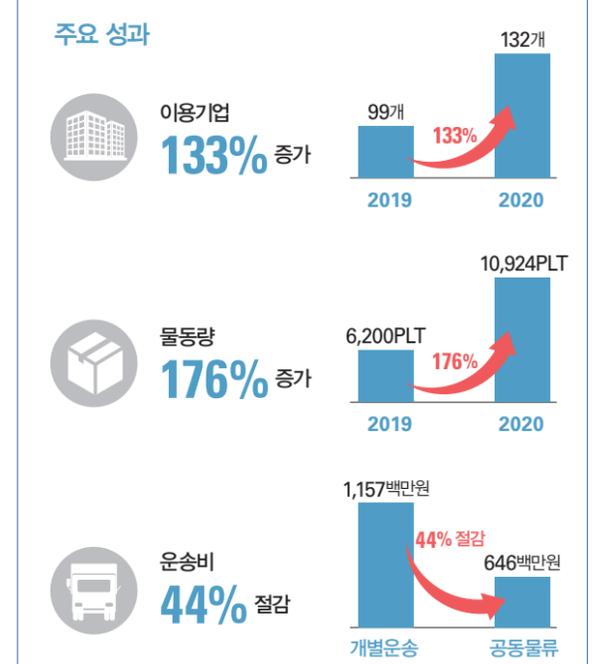
본 칼럼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지침 강화 이전에 진행했으며, 촬영 전후 참가자, 스태프 전원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도내 기업을 위한 제주공동물류센터



제주개발공사는 도내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2017년부터 공동 물류센터를 대항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물류를 집하, 하역,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품 보관료, 운송료, 상·하차료를 지원한다. 최근 공동물류센터 실적은 눈에 띄게 증가 하고 있다. 특히 2019년과 2020년 상반기를 비교해보면 이용기업 은 99개사에서 132개사로 133%나 늘었고 물동량은 6,200PLT에 서 1만 924PLT로 176% 증가했다. 운송비는 개별운송에 비해 44%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PLT(팔레트) : 화물을 일정한 단위로 모아 보관·수송하는 데 쓰이는 평면 받침대



1

제주삼다수 취수원 주변 지하수 특성 논문 발표

제주개발공사는 20여 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조사·연구 자료를 토대로 최근 제주삼다수 주변지역 지하수 특성에 대한 논문 두 편을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에 발표했다. '정규화된 표준편차 및 교차상관계수를 이용한 제주도 표선유역 중산간지역의 지하수위 변동성 분석' 논문에서 제주삼다수 취수량이 주변지역의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오직 강수량에 따라 동저하고(冬低夏高)의 변화를 지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동평균법과 교차상관계수를 이용한 제주도 표선유역 중산간지역의 강수량과 지하수위 간의 지체시간 추정' 논문도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향후 지하수 보전·관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2

제주삼다수 해피플러스 공모사업 지원금 전달

도민들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도민 맞춤형' 사회 공헌사업인 제주삼다수 해피플러스 공모사업에서 36개 기관 및 단체가 최종 선발됐다. 공사는 지난 7월 10일 공모사업에 선정된 36개 기관 및 단체에 사업지원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제주삼다수 해피플러스 공모사업은 도내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도민 체감형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공사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억 원이 늘어난 총 5억 원의 사업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3

사이판에 제주삼다수 2만 2,400병 지원

제주개발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판에 제주삼다수 2만 2,400병을 긴급 지원했다. 제주삼다수의 전략적 수출 지역 중 하나인 사이판은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관광객이 전혀 유입되지 않아 주요 수입원이 끊긴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글로벌 상생 활동의 일환으로 사이판에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 공사가 지원한 삼다수는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이민국, 세관, 검역소, 코로나19 지정 병원 직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4

공사·제주시, 도시재생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제주개발공사와 제주시는 지난 8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본격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사업발굴과 협력추진, 정책발굴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 관련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양 기관은 앞으로 중앙 및 광역공모, 국공유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제주시에서 추진중인 뉴딜사업 추진은 물론 올해 하반기 중앙 공모사업에도 함께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적인 업무검토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5

공사 웹진 '삼다소담' 스티비 어워드 금상 수상

제주개발공사 웹진 '삼다소담'이 2020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드(2020 Asia-Pacific Stevie Awards) 엔터테인먼트/일반정보 웹사이트 혁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스티비 어워드는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국제 비즈니스상으로, 그중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9개국의 일반 기업과 단체·공공기관 등의 혁신적 성과를 평가·시상한다. '삼다소담'은 총 20개국 1,200여편 중 엔터테인먼트와 일반정보 분야 웹사이트 혁신상인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6

'46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산업계의 전국체전'이라고 불리는 제46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 참여한 제주개발공사 품질분임조가 각 분야에서 대통령상 금·은·동상을 잇달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올해 첫 출전한 제주개발공사 삼다수생산본부 생산3팀 '도전' 분임조(조장 강택건)는 '보전경영' 분야에서 예방정비 체제 구축과 제주삼다수 상표 부착 공정을 개선해 1억 4,000여만 원의 경제효과를 얻은 성과를 인정받아 금상을 거머쥐었다. 생산3팀의 '이글스' 분임조(조장 오동은)는 'TPM' 분야에서 은상을, 삼다수생산본부 생산2팀 'CAP' 분임조(조장 공문성)는 '자유형식' 분야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제주개발공사 Channel

1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알고 싶을 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

www.jpdc.co.kr

제주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활동과 다양한 소식을 알리는 공식 홈페이지를 만나보세요.

대표 브랜드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먹는샘물사업, 음료사업, 지역개발 사업, 공익사업 등 제주개발공사의 핵심 사업과 활동 등을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공식 유튜브 바로가기

2



공식 웹진 바로가기

신기한 물 이야기, 즐거운 제주 이야기가 가득!

월간 웹진 '삼다소담'

<http://webzine.jpdc.co.kr>

제주의 물 이야기와 즐거운 제주 소식을 풍성하게 담아내는 월간 웹진 '삼다소담'으로 오세요.

제주개발공사의 대표 소통 플랫폼으로 다양한 공사의 활동과 흥미로운 물 이야기, 즐거운 제주 이야기까지 가득합니다.



공식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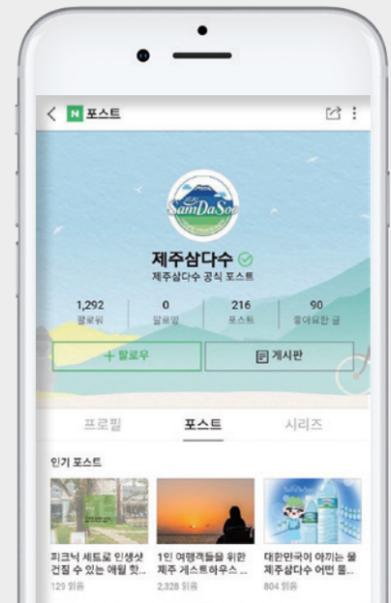
공식 포스트 바로가기

풍성하고 재미있는 제주삼다수 이야기

제주삼다수 공식 포스트

<https://post.naver.com/samdasoostory>

제주개발공사의 대표 브랜드이자 먹는샘물 No.1 '제주삼다수'를 만나보세요. 제주삼다수 공식 포스트에서는 제주삼다수에 대한 풍성하고 재미있는 물 이야기와 트렌디한 제주 소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공식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PROVINCE DEVELOPMENT CO.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함께해 주세요.

깨끗하게 버린
제주삼다수병이 모여
가방이 됩니다.

